

<어렵게 상경했는데 일만 하면 재미없잖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아리, '모여봐요 서울탐방단'입니다.

먼저 '보여줘, 너만의 사회주택' 공모전을 열어 주신 따뜻한사회주택기금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저희 조합의 자랑인 동아리 사업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주택에서야 반상회다 뭐다 커뮤니티적으로 마주칠 일이 많지만 조합 내의 다른 주택과는 교류가 영 없다 보니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수단으로 조합원들이 스스로 만드는 모임, 일명 조(합)동아리를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조합원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활동 후기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조합은 해당 동아리에 독려 차원으로 소정의 다과비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생긴 동아리들이 조합 안에 몇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가장 활발하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임을 결성하게 된 이유는 제목에도 써 놓았듯이 어렵게 서울에 와서 자리 잡았는데 코로나 시국을 겪게 되면서 외출하는 일이 생업 관련 외에는 거의 없었기에 우리끼리라도 가고 싶은 곳을 정하여 서울 곳곳을 다녀보려고 만들었습니다. 맛집이나 예쁜 카페가 아닌 박물관, 문화재 등 도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을 다니면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기 위해 즉, 이름 그대로 서울을 탐방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2021년에 부암동, 서촌, 창덕궁, 전쟁기념관 등을 다니면서 그 해 겨울에 시즌1을 마무리 짓고, 2022년 여름부터 새로운 모임원들과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매 월 개개인이 가고 싶었던 곳을 선정하여 다 같이 시간 맞춰 다녀오거나 각자 다녀와서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을 가서 업무에 시달리던 스트레스도 풀고 소소한 재미를 찾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2022년 7월 19일. 서울역 달팽이집 옥상에서 시즌2 멤버의 첫 모임)



첫 모임에서는 간단히 자기 소개와 앞으로 어떤 곳에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모임원 중 한 분이 살고 있는 서울역 달팽이집 옥상!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파라솔과 조명으로 꾸며진 서울역 달팽이집 옥상에서 퇴근 후 모여 피자과 맥주를 먹으며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모임원 두 명은 이제 상경 2년차인데, 한 분은 무려 상경 10년차라서 어디 가면 뭐가 좋고 뭐가 맛있고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두번째 모임은 <창신동의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채석장 전망대-낙산공원-혜화동>으로 이어지는 코스!



이음피움 봉제 역사관에서는 재봉틀, 재단 가위, 다리미 등 오래된 재봉 도구의 전시와 함께 해설가 선생님의 창신동 봉제공장 역사와 봉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태일 열사에 대한 설명에서는 거북이의 사계(원곡자 노찾사)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미싱은 계속 돌아가고, 그 계절이 다시 돌아와도 미싱은 돌고 돌아간다는 가사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던 분들을 생각하니 저절로 숙연해졌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손수건에 본인 이름을 자수로 새길 수도 있고, 직접 바느질을 하여 브로치 및 머리끈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서 각자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오르막길의 채석장 전망대까지 올라 카페에 들렀다가 낙산공원으로 내려와 혜화동에서의 저녁식사까지, 고작 두번째 만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래 본 사람들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 8월 21일.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에서 만든 손수건, 브로치)

세번째 모임은 <남산골 한옥마을-남산 드라이브>

(2022년 9월 22일. 한옥마을 옆 서울 1000년 타임캡슐에서 그림자 사진 촬영)



이제 달팽이집에 입주한지 3개월 된 새로운 멤버와 작년에 같이 서울탐방단 모임을 했던 목동 달팽이집의 객원 멤버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갔던 날 마침 한국의 맛 축제를 하고 있어서 팔도의 먹거리를 구경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존이 잘 된 한옥들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건설현장 소장 격인 도편수나 대통령경호처장 격인 오위장의 집은 되게 소박했는데, 친일파의 집은 거의 궁궐 비슷했다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한옥마을 옆에는 서울 1000년 타임캡슐이 있었는데 1994년에 봉인하여 해제되는 날은 2394년이라고 합니다. 해제되는 날이 궁금한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후대 사람들은 타임캡슐을 해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질문을 하며 돌아봤었습니다.

네번째 모임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하는 <오픈하우스 서울> 탐방 후 온라인으로 모이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우스 서울은 서울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탐방 및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종류가 굉장히 많고 모임원들의 관심사가 다 달라 각자 프로그램 참여 후에 모여서 후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모여봐요 서울탐방단’을 통하여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서울의 곳곳을 직접 다녀보면서 알게 되어 좋고, 무엇보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에 더 좋습니다. 심지어 달팽이집 소속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처음 만났지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주택에 살고 있다는 감각, 서울에 소속되어 살고 있다는 감각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모임을 하면 할수록 서울 올라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들을 같이 갔다 오면 한 달은 또 그 기억으로 험난한 세상을 버틸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여봐요 서울탐방단은 안 가본 곳이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